

사회 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1. ④	2. ②	3. ②	4. ⑤	5. ⑤
6. ⑤	7. ④	8. ④	9. ③	10. ①
11. ⑤	12. ④	13. ②	14. ⑤	15. ③
16. ②	17. ③	18. ③	19. ④	20. ⑤

- 제시문의 '나'는 규범 윤리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덕적 언어의 분석을 윤리학의 본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어떤 사람들'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을 가진다. ㉠에는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메타 윤리학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 기술 윤리학에 대한 내용이다.
- 인간 유전자 조작에는 난치병의 치료나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적·소극적 유전자 조작과 우월한 형질을 유발하기 위한 우생학적·적극적 유전자 조작이 있다. 같은 인간 유전자 조작 전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혹은 우생학적 유전자 조작에는 반대하지만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소극적 유전자 조작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 갑, 을의 공통적인 입장으로 B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갑은 장자,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장자는 삶과 죽음은 차별이 없는 것으로,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장자, 에피쿠로스는 공통적으로 죽음을 두려움이나 고통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죽음 이후의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다.  
㉣. 불교, ④ 유교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제시된 가상 편의의 필자는 엔지니어가 자신의 전문적 지식이 바람직하게 활용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공학의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⑤ 필자는 전문직으로서 과학 기술자가 공공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제시문의 내용과 관계가 없다. ④ 제시문에 의하면 엔지니어는 기술의 사회적 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그림의 강연자는 길리건이다. 길리건은 기존의 윤리가 남성 중심적, 정의 중심적인 윤리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배려 윤리를 제시하였다. 정의 중심적 윤리에서는 이성, 권리, 공정성 등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원리를 강조하는 데 비해, 배려 중심적 윤리에서는 공감, 책임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와 맥락을 중시한다. ⑤ 길리건은 추상적인 원리를 강조하는 정의 윤리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맥락을 중시하는 배려 윤리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길리건은 기존의 윤리가 부당하게 성별에 차등을 두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차등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길리건은 기존의 정의 중심적 윤리와 배려 윤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본다.
- ㉠는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소외된 노동으로서 노동자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노동이 인간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산 수단을 공유화하여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노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① 마르크스는 분업이 노동자를 기계로 전락시킨다고 보았다. ② 노동 과정에 대한 기업가의 통제가 강화되면 노동자의 노동은 강제된 노동의 성격이 강화될 것이다.
- ㉠는 밀의 주장이다. 밀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진다. 이는 자유의 권리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④ 밀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중에도 통제

- 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제시문의 '어떤 사람들'은 기술은 수단일 뿐이고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본 아스퍼스의 입장과 같다. 반면 제시문의 '나'는 기술은 단순한 가치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고 인간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어 놓는다고 본 하이데거의 입장과 같다. '나'의 입장에서는 기술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강조할 것이다. ㉠에는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 대한 '나'의 비판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 '어떤 사람들'은 과학 기술은 단지 인간이 활용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본다.
  - 갑은 칸트, 을은 벤담이다. 칸트는 의무론의 관점에서 행위의 결과보다 보편 타당한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내면적 선의지를 강조하였다. 도덕적 행위는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과 그에 따르는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것이다. 벤담은 결과론의 관점에서 행위의 결과가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벤담은 결과적으로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는 유용성의 원리를 따른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보았다. ③ 칸트는 고통의 감소를 위해 생명을 훼손하는 것은 생명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 칸트는 행복의 증진을 의무로 보지 않았다. ② 칸트는 경향성을 극복하고 의무 의식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④ 그리스도교의 입장, ⑤ 자연법적 관점에서 제시할 조언이다.
  - 제시문은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에 대한 주장이다. 매킨타이어는 덕 윤리의 입장에서 칸트와 공리주의 같은 근대 윤리가 인간의 내면과 인성을 간과하고 도덕적 의무와 법칙만을 강조했다고 비판하며, 행위를 하는 구체적인 행위자를 중시한다. 또한 그는 덕이란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개인의 문제 역시 공동체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 공리주의는 행위자의 품성보다 도덕적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 그 자체를 더 중시한다.
  - 갑은 소로, 을은 롤스이다. ㉢. ㉡ 소로와 롤스 모두 긍정, ㉣ 소로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소로는 양심과 법이 충돌할 경우 양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소로는 양심과 정의에 위배되면, 롤스는 다수의 정의관에 위배되면 다수결로 정해진 법이라도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로와 롤스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제시문은 갈통의 주장이다. 그는 평화는 모든 폭력이 제거된 상태이며, 그러한 폭력 속에는 억압과 착취, 빈곤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가 지향하는 적극적 평화는 인간다운 삶의 실현과 관련된 인간 안보의 실현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관점, 갈통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도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관점, 갈통은 빈곤과 억압, 착취, 차별 등은 모두 폭력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셋째 관점,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제약하는 제도와 법의 개혁이 적극적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개인의 자유는 오직 더 큰 또는 보다 근원적인 자유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을 뿐,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없다고 보았다.  
㉠ 롤스에 의하면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distribution of natural endowment)'를 공동 자산(common asset)으로 간주한다. 이는 재능을 원래 공유 자산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재능의 다양함과 차이를 공동 자산으로 보는 것이다.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은 자연적 사실로서 그 자체로는 정의롭거나 정의롭지 않거나 판단할 수 없다. ③ 노직은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으로 인한 것도 개인의 소유이며,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개인의 것이라고 보았다. ④ 노직은 취득 과정에서 불의가 발생할 경우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

- 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⑤ 롤스, 노직 모두 공정한 절차나 과정을 통해 얻은 재화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였다.
- 갑은 인간 중심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생명 중심주의자 테일러, 병은 생태 중심주의자 레오폴드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일러는 공통적으로 모든 생명체가 일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주장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 생명체가 추구하는 목적에는 일정한 위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해 테일러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본다. ⑤ 레오폴드는 전체론적 입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일러가 개체들의 도덕적 지위를 강조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③ 롤스에 의하면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① 롤스와 싱어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으로 보지 않는다. 지구적 차원에서 부유한 국가의 부를 불리한 여건의 사회로 이전하는 것을 원조의 의무로 여기지 않는다. ④ 싱어는 원조의 주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될 수 있다고 본다. ⑤ 싱어는 인류의 복지 증진이 원조의 목적이라고 본다.
  - 제시문의 사상가는 동물 중심주의자 싱어이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에 대해 도덕적 고려를 해주어야 하며,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을 단지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중 차별주의'라고 본다. ⑤ 싱어는 동물도 쾌고 감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동물을 도덕적 행위의 주체(스스로 도덕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보지는 않는다.
  - ㉠는 동화주의적 관점, ㉡는 다문화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동화주의적 관점에 비해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단일한 문화를 전제로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정도는 낮고(X : ㉠, ㉡), 다양한 문화들의 정체성의 존속을 강조하는 정도는 높으며(Y : ㉠, ㉢, ㉣, ㉤), 문화 간의 우열을 가려야 함을 중시하는 정도는 낮다(Z : ㉢, ㉣, ㉤). 따라서 ㉣이 정답이다.
  - 갑은 세계화의 대안으로 지역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을은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세계화의 대안으로 지역화를 택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③ "세계화는 인류 구성원 모두의 부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갑은 '아니요', 을은 '예'를 대답할 것이다. "세계화의 대안으로 지역화가 필요한가?"에 대해 갑은 '예', 을은 '아니요'를 대답할 것이다.
  -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이다. 칸트의 응보주의에 의하면 처벌의 본질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으며,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게 응분의 처벌을 내리는 것이며, 어떤 목적이나 좋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 베카리아에 의하면 인간이 사회 계약을 맺을 때 생명에 대한 권리를 위탁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형 제도는 사회 계약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 ② 베카리아는 긍정, 칸트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칸트는 사형 제도가 살인자를 자율적 책임의 주체, 즉 인격을 지닌 존재로 대우한다고 본다. ③, ⑤ 베카리아는 부정, 칸트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베카리아는 원칙적으로 사형 제도를 반대하였고, 칸트는 응보주의의 원리에 따라 살인자에게 사형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 갑은 예술의 상업화가 예술의 대중화와 예술 창작자의 창작 의욕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며, 을은 예술의 상업화가 예술의 본질적 가치 저하와 예술 작품의 획일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 예술의 상업화가 예술 작품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을만의 입장이다.